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청지기적 신실함을 담은 창의적 예배

들어가며: 유행과 예배

부터운 여름이 지나고 미뤄 두었던 옷 정리를 했다. 가을 옷을 꺼내 입어 보니 바지의 기장이 짧아 보였다. 요즘은 통이 넉넉하고 기장이 긴 바지가 유행이다 보니, 몇 해 전 즐겨 입던 옷이 어느새 어색하게 느껴졌다. 옷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옷을 바라보는 시대의 눈이 달라졌을 뿐이다.

예배의 모습에도 시대의 흐름이 있다.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집회는 대개 조명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 순서도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기보다 찬양과 설교, 그리고 결단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구조는 18세기 대각성운동에서 19세기 초 캠프미팅으로 이어진 북미 변경 전통(James F. White는 이를 'Frontier Tradition'이라 불렀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들의 주일 예배에서도 이 구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북미 교회는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의 스타일을 두고 '예배 전쟁(Worship Wars)'이라 불릴 만큼 긴 논쟁을 겪었다. 이 논쟁은 점차 "예배의 주체는 누구이며,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깊어졌다. 그 결과 예배의 본질이라는 기둥을 지키되, 그 위에 입히는 형식은 예배공동체의 문화적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배학자 레스터 루스(Lester Ruth)의 말처럼,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스타일로 예배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성경적 · 신학적 · 목회적으로 건전하게" 예배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오늘날 SNS에는 '분화'라는 이름으로 예배에 새로운 요소를 덧입히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문제는 새로움 자체가 아니다. 그 새로움이 무엇을, 누구를 드러내는가이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예배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이다.

□ 창조와 창의

창조(create)는 라틴어 creare(만들어 내다, 낳다, 존재하게 하다)에서 온 말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하다(바라)'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하나님만의 일이다. 반면, 창의(creative)는 그 창조를 닮은 성질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그 창조에 응답하고 동참한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동산을 '경작하며(아바드) 지키는(샤마르) 일'이었다. '아바드'는 훗날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출 3:12)라는 뜻으로, 또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는 직무(민 3:7-8)에도 쓰인다. 사람의 창의성은 처음부터 맡겨진 것을 섬기고 가꾸는 청지기적인 창의성이었다.

새로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해체주의적 창의성은 시대의 취향에서 출발해 전통을 부수고, 결국 예배를 만든 사람을 드러낸다. 반면 청지기적 창의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출발해 물려받은 것에 새 옷을 입히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문화는 옷을 갈아입는다. 앞에서 말한 바지처럼, 바뀌는 것은 옷이지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의적 예배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의 일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동참하는 예배다.

□ 기둥과 지붕

예배학자 콘스탄스 체리(Constance M. Cherry)는 『예배 건축가』에서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을 '예배 건축가'라 부른다. 그 책의 부제는 '문화에 적절하고 성경에 충실한 예배 디자인 청사진'이다. 체리는 예배를 집 짓는 과정에 빗댄다. 먼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성경적 · 신학적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모임 · 말씀 · 응답 · 파송이라는 사중구조를 세운다.

필자는 이 모형을 빌려 창의적 예배를 '기둥'과 '지붕'으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 · 신학적 · 역사적 연구다. 성경은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 준다(출 14-15장). 역사는 주일에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떡을 떼



던 초대교회 이래(행 20:7), 교회가 시대마다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보여 준다. 신학은 예배가 계시와 응답의 대화임을 가르친다. 이 기둥은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세로로 잇는다. 레스터 루스가 건전한 예배를 위해 역사 연구를 강조한 것도 이 기둥을 먼저 확인하라는 뜻이다.

지붕은 경험적 · 상황-문화적 연구로 얹는다. 지붕은 그 땅의 기후에 따라 경사와 재료가 달라진다. 예배공동체의 세대와 지역을 살피고, 공간 · 음악 · 행정 · 미디어를 가로로 엮어 그 공동체에 맞는 지붕을 얹어야 한다. 기둥 없이 지붕만 화려한 집은 무너지고, 지붕 없이 기둥만 선 집에는 사람이 깃들 수 없다. 이 연구는 성경을 우선으로 삼되, 전통과 이성과 경험으로 그 이해를 확증하는 '웨슬리안 사변형'과도 맞닿아 있다. 기둥은 교회의 역사에 맞추고, 지붕은 예배공동체와 시대에 맞춘다.



□ 주일에 모이는 이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행 20:7).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고전 15:20)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모임이다.

부활은 예배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붙든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편한 친구'처럼 노래하며 나의 감정과 필요를 고백하는 내재성이 강조된 수평적 찬양에 기울어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찬양이 앞서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작게 드러낸다. 둘 중 하나를 고르자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위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원에 응답하는 자리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에 가장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다(출 15장).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응답이다. 설교가 예배의 핵심 실천이지만, 예배는 말씀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예배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에클레시아)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은 예배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배공동체는 그 말씀에 기도와 물질로, 성찬이 있는 날에는 주님의 식탁에서 감사로 응답한다. 축도는 복을 받고 끝나는 순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선언이다. 예배공동체는 그 축복과 함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롬 12:1).

□ 화려함에서 선명함으로

변화의 시대에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새로워지라는 유혹을 받는다. 더 밝은 조명, 더 웅장한 음향, 더 세련된 영상, 그리고 창조적 기획은 예배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창의적 예배가 던지는 물음은 하나다. 이 창의성은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내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예배의 지붕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적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도, 현대적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도, 다음 세대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도 같은 기둥 위에 서 있다면 모두 교회의 예배다. 예배공동체와 시대에 맞는 지붕을 고민하는 것은 청지기의 마땅한 몫이다. 그러나 지붕이 기둥을 가릴 만큼 화려해지면, 예배가 끝난 뒤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대가 된다. 조명과 음향, 영상과 공간은 하나님을 가리는 장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명히 비추는 창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예배의 심장과 방향에서 나온다.

선명한 예배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예배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로 응답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다. 예배를 마친 자리에 "오늘 예배 좋았다"는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는 고백이 남는 예배다. 그 고백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웨슬리가 말한 '마음과 삶의 성결'처럼, 선명한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낸다.

나가며: 창의적 예배의 청지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더 새롭게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예배해야 한다. 창의적 예배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의 일에 신실한 청지기로 응답하고 동참하는 예배다. 그러므로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세우고, 지붕은 시대에 맞게 새로 얹되,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 에덴에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부름 받았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맡은 청지기로 다시 부름 받는다. 맡은 자, 곧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피스토스) 자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고전 4:2). 시대는 흘러가도 예배는 지나가지 않는다. 예배받으실 분이 영원히 통일하시기 때문이다.

이재민 목사
성결대학교 신학과 겸임교수
시티미션교회 창의목회실장



HAPPY Thanksgiving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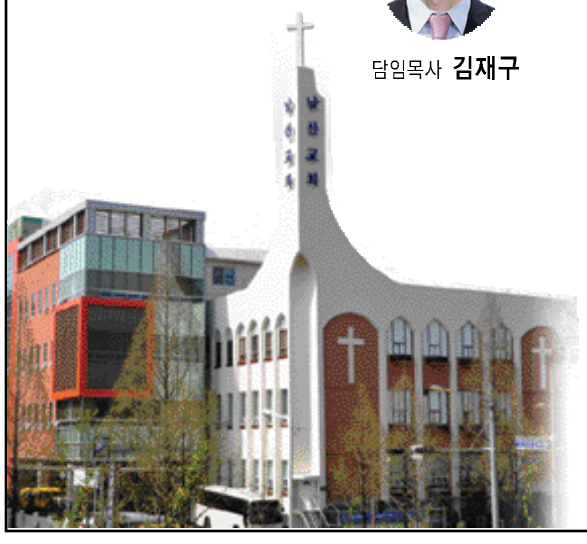
미래로 세계로 이웃으로!
예수님 닮기를



담임목사 **김재구**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김재구
부 목 사 오창훈 황인준
허찬양 심지훈
강대룡 양명자
전 도 사 송정욱
시무장로 김광연 송성민
이길수 권오조
최순필



예 수 교
대한성결교회
남산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45(반림동)
전화. 055-603-6000 Fax. 055-261-9182

HAPPY Thanksgiving

표어

"영혼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해"(막 16:15)



담임목사 **강대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조병창
부 목 사 최종찬
전임사역자 최호섭 김준호
교육목사 정민우 박효진 김하은
John Birley
교육전도사 주찬미 김영광 김두민
소속전도사 서승학
시무장로 유지영 유의근 조성용
이병덕 양현배 안태섭
윤경현 권이석



안양성결교회
Anyang Sungkyul Church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8
T.031)466-0623 www.asc.or.kr